

## 노동시장 동향

### 경제일반

- ◆ 2005년 1/4분기 생산부진, 소비 및 투자 소폭 증가
  - 200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조업일수 감소, 담배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성장에 그침. 전년동기 성장률 5.3%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름.
    - 제조업 부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및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호조로 2.2% 증가하였음.
    - 소비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투자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음.
  - 2005년 3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8%, 4.3%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1.6% 증가. 도소매 판매는 1.3% 증가, 설비투자도 2.2% 증가하였음 (표 1 참조).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의 증가(2005년 2월의 7.3% 감소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은 200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1.6%)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과 오락·

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의 감소를 제외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9개 업종에서 증가(그림 2 참조).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대형할인점, 무점포 판매 등에서 크게 증가),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업에서 모두 증가하여 1.3% 증가(1/4분기로는 1.1% 감소추세)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3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p	3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1.6	12.7	11.4	6.7	3.8	4.8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2.0	13.2	11.6	7.0	3.5	4.6
	출하	10.8	4.4	2.8	2.5	6.7	10.0	10.9	10.8	10.1	5.8	3.4	4.3
	수출	12.2	7.3	9.9	11.2	17.6	21.9	21.4	23.4	20.4	15.0	10.8	1.9
	내수	10.0	2.8	-0.7	-2.1	0.9	3.7	5.0	3.8	4.1	0.3	-1.3	0.1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2.5	0.9	-0.5	-0.2	0.7	1.6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8	-0.6	-1.1	-1.4	-1.1	1.3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7.7	3.2	3.8	0.1	4.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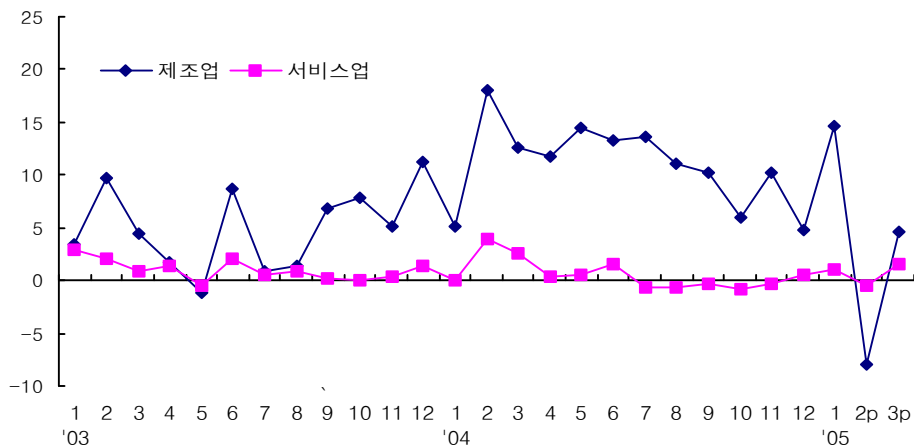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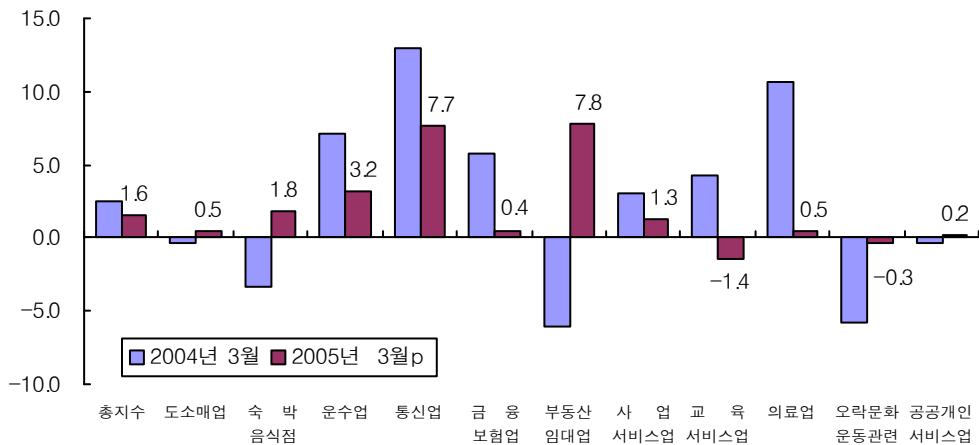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5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4.

\_\_\_\_, 『2005년 3월 및 1/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5.

- 설비투자 부문은 컴퓨터,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 증가됨. 2004년 1/4분기 이후 설비투자 부문의 증가세 지속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또한 전월보다 소폭(0.4%포인트)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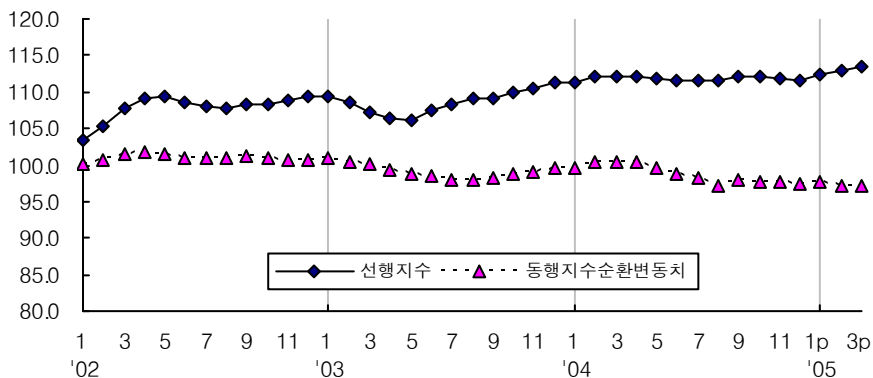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세 지속, 고용률 감소

- 2005년 4월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10천명(1.3%)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
  - 2005년 1월 이후 전년동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75.0%), 여성(50.3%) 각각 0.1%포인트씩 하락
- 2005년 4월중 취업자는 22,9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2천명(1.2%)이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3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천명(1.2%), 여성취업자는 9,5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1.1%) 증가
  - 전체 취업자 증감률이 2005년 2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50~59세의 증가세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그림 4 참조)
- 2005년 4월중 고용률은 60.1%로 공급(참가율)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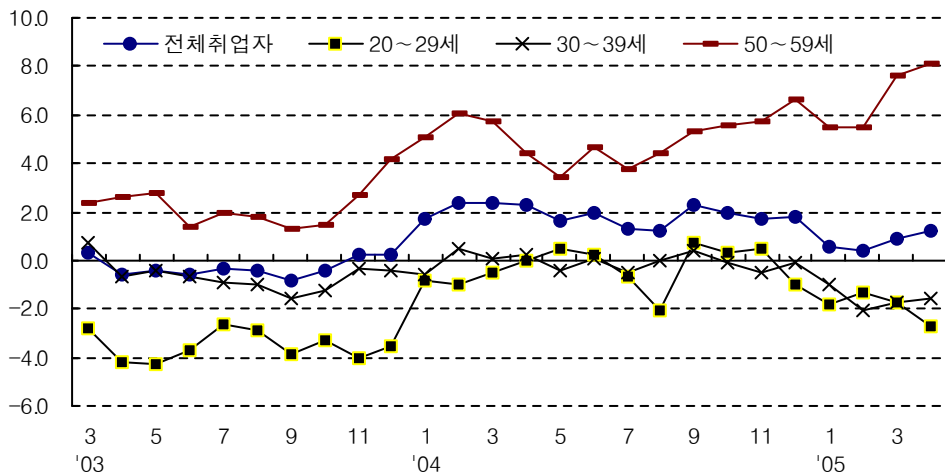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2/4분기
				4월						4월
경제활동인구	23,119 ( 0.6)	22,982 ( 2.4)	23,531 ( 2.1)	23,482 ( 2.5)	23,434 ( 1.7)	23,534 ( 1.8)	23,534 ( 0.8)	23,011 ( 0.5)	23,483 ( 1.0)	23,791 ( 1.3)
참가율	61.7	61.2	62.5	62.4	62.0	62.2	60.9	60.5	61.6	62.3
취업자	22,325 ( 0.0)	22,104 ( 2.2)	22,744 ( 2.0)	22,673 ( 2.3)	22,647 ( 1.6)	22,733 ( 1.8)	22,247 ( 0.6)	22,086 ( 0.4)	22,567 ( 0.9)	22,934 ( 1.2)
고용률	59.6	58.8	60.4	60.2	60.0	60.1	58.5	58.1	59.3	60.1
실업자	794	878	787	809	787	802	912	925	907	857
실업률	3.4	3.8	3.3	3.4	3.4	3.4	3.9	4.0	3.9	3.6
비경제활동인구	14,357 ( 1.8)	14,595 (-1.1)	14,141 (-0.7)	14,157 (-1.3)	14,337 ( 0.0)	14,313 (-0.3)	14,852 (1.8)	15,000 ( 2.2)	14,614 ( 1.8)	14,393 ( 1.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에 못미치는 취업자의 증가율로 인해 고용률이 감소
- 2005년 4월중 실업자는 8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명(5.9%)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감소
  - 남성실업자는 대폭 증가하여 527천명(9.4%)인 반면, 여성실업자는 3천명(0.8%)으로 소폭 증가함.
  - 실업률도 남성에서 많이 증가(남성: 3.8%(0.3%포인트), 여성: 3.3%(-0.1%포인트))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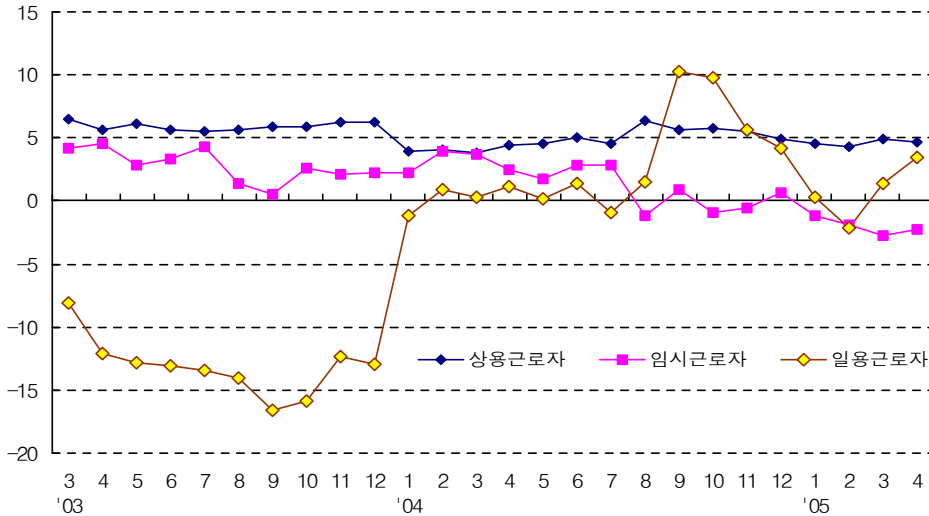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비경제활동인구는 14,3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5천명(1.7%) 증가(전월대비 222천명(-1.5%)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 증가
  - ※ 구직단념자 추이: 89천명(2004. 4) → 99천명(2004. 11) → 105천명(2004. 12) → 136천명(2005. 1) → 135천명(2005. 2) → 109천명(2005. 3) → 103천명(2005. 4)
- 2005년 4월에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고용상황은 악화
  - 20~30대의 취업자 감소와 일용근로자의 증가, 실업률 상승으로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함.

- 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 및 임시근로자의 감소와 취업자가 전년동월에 비하여 1.2%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취업자의 고용사정은 소폭 개선(그림 5 참조).

[그림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4월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7천명, 5.2%), 전기·운수·통신·금융업(68천명, 3.1%)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1천명, -1.4%), 제조업(-52천명, -1.2%), 건설업(-17천명, -1.9%) 등에서는 감소함.

-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률을 보면, 제조업에서 남성 취업자는 32천명(1.1%)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84천명(-5.5%) 감소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남성: 66천명(1.9%), 여성: 271천명(9.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2/4분기
전 산업	22,325 ( 0.0)	22,104 ( 2.2)	22,744 ( 2.0)	22,673 ( 2.3)	22,647 ( 1.6)	22,733 ( 1.8)	22,247 ( 0.6)	22,086 ( 0.4)	22,576 ( 0.9)	22,934 ( 1.2)
농림어업	1,882 (-8.0)	1,609 (-5.3)	1,967 (-7.5)	1,932 (-7.0)	1,933 (-7.5)	1,789 (-4.9)	1,525 (-5.2)	1,462 (-6.0)	1,708 (-4.1)	1,935 ( 0.2)
제조업	4,246 (-0.1)	4,278 ( 2.6)	4,308 ( 1.7)	4,323 ( 2.0)	4,278 ( 2.7)	4,296 ( 1.2)	4,260 ( -0.4)	4,255 (-0.4)	4,274 (-0.8)	4,271 (-1.2)
건설업	1,854 ( 2.3)	1,762 ( 1.6)	1,864 ( 0.6)	1,869 ( 1.3)	1,790 (-1.7)	1,864 ( 0.6)	1,692 (-4.0)	1,632 (-5.6)	1,759 (-3.2)	1,851 (-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51 (-2.1)	5,912 (-0.1)	5,866 ( 0.5)	5,873 ( 1.0)	5,819 ( 0.2)	5,853 ( 0.0)	5,835 (-1.3)	5,839 (-1.3)	5,817 (-1.0)	5,792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22 ( 4.5)	6,362 ( 7.3)	6,542 ( 8.0)	6,495 ( 8.5)	6,617 ( 5.8)	6,711 ( 6.1)	6,714 ( 5.5)	6,695 ( 5.5)	6,780 ( 5.7)	6,832 ( 5.2)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53 (-1.0)	2,163 (-0.2)	2,182 ( 0.2)	2,165 (-0.7)	2,197 ( 2.6)	2,205 ( 2.4)	2,202 ( 1.8)	2,186 ( 1.0)	2,220 ( 2.9)	2,232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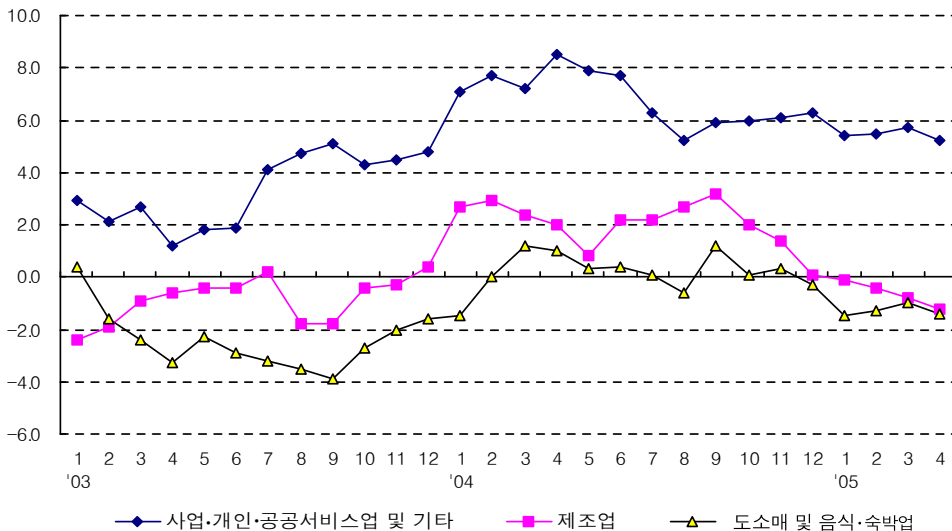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고 계절적 일자리 증가로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 증가,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

- 2005년 4월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67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9천명(-0.6%)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는 15,2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1천명(2.1%) 증가
  -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소폭 상승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2004년 4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상용근로자(354천명, 4.7%)이며, 비임금근로자 감소를 주도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86천명, -5.3%)임.
  -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와 상용직 중심으로의 이동은 좋은 현상이나 감소된 인력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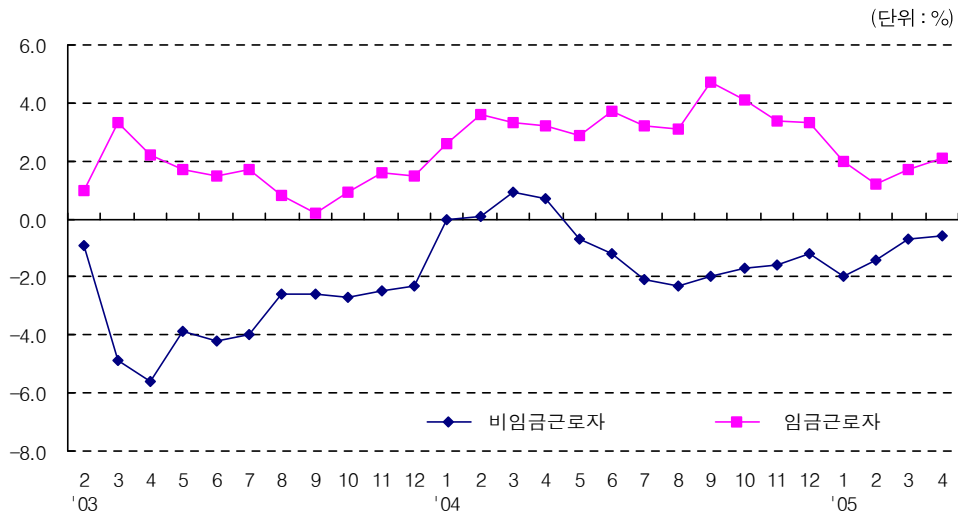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2/4분기
전 체	22,325 ( 0.0)	22,104 ( 2.2)	22,744 ( 2.0)	22,673 ( 2.3)	22,647 ( 1.6)	22,733 ( 1.8)	22,247 ( 0.6)	22,086 ( 0.4)	22,576 ( 0.9)	22,934 ( 1.2)
비임금근로자	7,748 (-2.5)	7,490 ( 0.3)	7,762 (-0.4)	7,724 ( 0.7)	7,769 (-2.1)	7,631 (-1.5)	7,391 (-1.3)	7,355 (-1.4)	7,534 (-0.7)	7,675 (-0.6)
자영업주	6,122 ( -0.9)	6,001 ( 2.3)	6,136 ( 1.9)	6,113 ( 2.8)	6,177 ( 0.1)	6,126 ( 0.2)	6,022 ( 0.4)	6,014 ( 0.5)	6,088 ( 0.5)	6,149 ( 0.6)
무급가족종사자	1,637 (-7.8)	1,489 (-7.0)	1,626 (-8.2)	1,612 (-6.6)	1,593 (-9.9)	1,505 (-8.0)	1,368 (-8.1)	1,341 (-9.1)	1,447 (-5.4)	1,526 (-5.3)
임금근로자	14,577 ( 1.4)	14,614 ( 3.2)	14,983 ( 3.3)	14,948 ( 3.2)	14,878 ( 3.6)	15,102 ( 3.6)	14,856 ( 1.7)	14,731 ( 1.2)	15,041 ( 1.7)	15,260 ( 2.1)
상용근로자	7,383 ( 6.1)	7,460 ( 4.0)	7,586 ( 4.6)	7,553 ( 4.4)	7,671 ( 5.5)	7,781 ( 5.4)	7,803 ( 4.9)	7,774 ( 4.3)	7,868 ( 4.9)	7,907 ( 4.7)
임시근로자	5,039 ( 2.3)	5,067 ( 3.3)	5,199 ( 2.3)	5,203 ( 2.5)	5,035 ( 0.9)	5,026 (-0.3)	4,968 (-2.0)	4,947 (-1.9)	5,010 (-2.7)	5,084 (-2.3)
일용근로자	2,155 (-13.8)	2,087 ( 0.0)	2,197 ( 0.9)	2,192 ( 1.1)	2,172 ( 3.5)	2,295 ( 6.5)	2,085 (-0.1)	2,010 (-2.1)	2,163 ( 1.4)	2,268 ( 3.5)
36시간 미만	2,370 (-1.0)	2,587 ( 0.8)	2,509 (27.9)	2,905 (40.1)	2,687 (-10.0)	2,501 ( 5.5)	2,757 ( 6.7)	3,098 (16.2)	2,907 (20.6)	2,521 (-13.2)
36시간 이상	19,730 (-1.0)	19,125 ( 0.8)	20,004 (-0.8)	19,539 (-1.9)	19,563 ( 3.6)	20,000 ( 1.4)	18,783 (-1.8)	18,524 (-2.2)	19,404 (-1.6)	20,181 ( 3.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2005년 4월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2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84천명(-13.2%)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81천명으로 643천명(3.3%) 증가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률 증가, 고졸 이하 저학력층 실업률 증가세 지속

- 2005년 4월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소폭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 18천명, 고졸 24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7천명 감소(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
- 전체 실업자 857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4.7%)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08천명으로 57천명(7.5%) 증가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53천명(37천명, 6.0%)으로, 이직한지 1년 이상된 전직실업자는 156천명(20천명, 14.3%)으로 증가
  - 신규실업자(5.7%)에 비해 전직실업자(94.2%)의 비중이 증가하여 최근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시사
    - ※ 전직실업자 비중: 93.0%(2004. 4) → 94.2%(2005. 4)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2/4분기 4월
전 체	794(3.4)	878(3.8)	787(3.3)	809(3.4)	787(3.4)	802(3.4)	912(3.9)	925(4.0)	907(3.9)	857(3.6)
15~29세	394(8.0)	448(8.9)	383(7.7)	376(7.6)	355(7.2)	378(7.7)	423(8.6)	425(8.6)	413(8.5)	375(7.8)
30~39세	188(3.0)	181(2.9)	176(2.7)	188(2.9)	192(3.0)	193(3.0)	212(3.4)	218(3.5)	205(3.3)	205(3.2)
40~49세	129(2.1)	151(2.4)	129(2.0)	140(2.2)	141(2.2)	134(2.1)	167(2.6)	170(2.7)	171(2.7)	159(2.5)
50~59세	61(1.8)	73(2.2)	74(2.2)	79(2.3)	73(2.1)	75(2.1)	86(2.5)	89(2.6)	90(2.5)	92(2.5)
60세이상	23(1.0)	25(1.2)	25(1.1)	26(1.1)	25(1.1)	21(0.9)	25(1.2)	24(1.1)	28(1.2)	27(1.1)
중졸이하	132(2.2)	144(2.5)	132(2.2)	130(2.2)	141(2.4)	136(2.3)	155(2.8)	149(2.8)	153(2.7)	47(2.5)
고 졸	438(4.3)	466(4.6)	398(3.9)	401(4.0)	417(4.1)	457(4.5)	495(4.9)	497(4.9)	468(4.6)	424(4.2)
대졸이상	224(3.2)	268(3.8)	257(3.5)	279(3.8)	229(3.1)	209(2.8)	263(3.5)	279(3.7)	286(3.8)	286(3.7)
신규실업자	59	82	49	57	29	37	56	57	50	49
전직실업자	736	796	738	752	758	764	857	869	857	808
1년 이상	121	146	131	136	120	134	163	162	177	156
1년 미만	615	650	607	616	638	631	694	707	681	65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5년 4월 고용동향』, 2005. 5.

## 임금 동향

### ◆ 2005년 2월 임금상승률, 전년동기에 비해 대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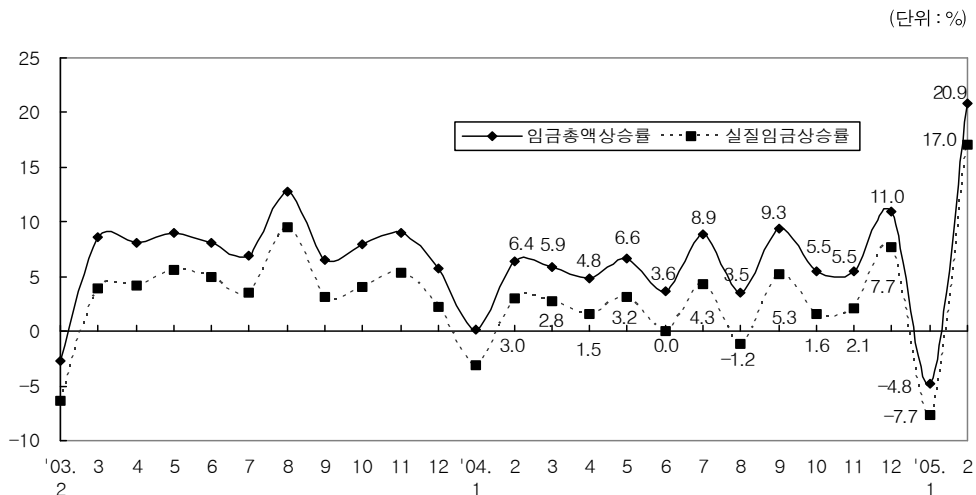
○ 2005년 2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24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9%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6.4%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임.
- 전년보다 매우 높은 임금상승률은 설 보너스 지급시기가 2004년에는 1월이었으나 2004년에는 2월로 늦춰짐에 따라 특별급여의 상승률이 대폭(78.4%) 상승한 데 기인
- 1~2월 임금총액은 2,39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 실질임금은 17.0% 상승

- 2005년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17.0% 상승함.
- 1~2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함으로써 2월 실질임금 17.0%보다는 낮은 3.8%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3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2월	1월	2월			
임 금 총 액	2,127 ( 9.2)	2,255 (6.0)	2,185 ( 3.9)	2,115 ( 5.0)	2,324 (7.3)	2,399 ( 7.7)	3,007 (11.0)	2,273 ( -4.8)	2,524 (20.9)	2,398 (7.1)
정 액 급 여	1,532 ( 8.8)	1,636 (6.8)	1,599 ( 7.0)	1,613 ( 6.6)	1,643 (6.9)	1,690 ( 6.7)	1,757 ( 6.4)	1,752 ( 8.2)	1,701 ( 8.3)	1,726 (8.2)
초 과 급 여	135 ( 7.3)	137 (1.7)	132 ( 3.1)	138 ( 2.5)	137 (2.5)	143 (-1.0)	140 (-2.1)	140 ( 6.9)	138 ( 3.7)	139 (5.3)
특 별 급 여	460 (11.4)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1,110 (21.3)	382 (-40.2)	684 (78.4)	533 (4.2)
실 질 임 금 지 수	115.2 ( 5.5)	117.9 (2.3)	115.5 ( 0.6)	111.1 ( 1.6)	120.5 (2.9)	124.5 ( 4.1)	156.3 ( 7.7)	117.3 ( -7.7)	129.5 (17.0)	123.3 (3.8)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0.7 ( 3.6)	114.7 (3.6)	113.4 ( 3.3)	114.2 ( 3.3)	115.6 (4.3)	115.5 ( 3.4)	115.4 ( 3.0)	116.2 ( 3.1)	116.9 ( 3.3)	116.6 (3.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4월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7%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4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6%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3%보다 0.7%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전년동기의 5.4%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2.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7%에 비해 소폭 상승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4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55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 되어 전년동기(11.9%)보다 낮은 8.9%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9.0%로 6,024개소 중 54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 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10개소가 타결되어 4.9%의 진도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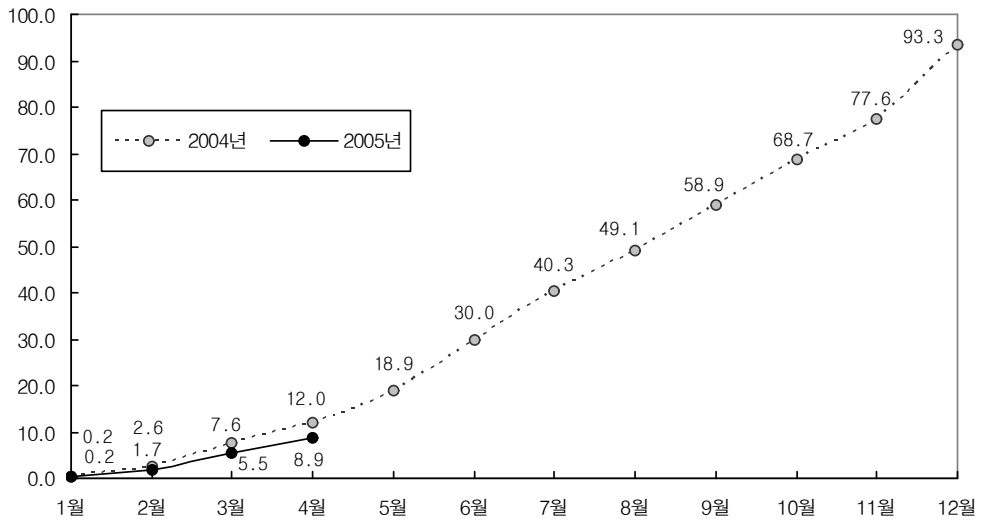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4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5,909)	554(706)	8.9(12.0)	4.6(5.3)
민간부문	6,024(5,727)	544(693)	9.0(12.1)	4.6(5.4)
공공부문	204( 182)	10( 13)	4.9( 7.1)	2.8(2.7)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9] 임금교섭 진도를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